

2023년 5월 4일(목) 석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3년 5월 4일 오전 06:00 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부서 : 서울시설공단
도로환경처

도로환경처장	김 병 희	2290-6351
환 경 팀 장	김 병 석	2290-6471
담 당	허 주 성	2290-7283
공단 누리집	www.sisul.or.kr→도로환경처	

사진없음 사진있음 총 3매

서울시설공단, 올림픽대로 등 자동차전용도로에 4일부터 수소 노면 청소차 운행

- 한국자동차연구원의 ‘대형 수소특장차’ 실증사업에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 참여
- 친환경 수소 동력 노면청소차 운행으로 유해물질 및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완화 기대
- 환경·사회·투명 경영(ESG) 경영 선도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지속적인 노력 다할 것

- 서울시설공단 (이사장 한국영, www.sisul.or.kr)은 4일부터 올림픽대로, 강변북로 등 서울시내 자동차전용도로에 수소 동력의 노면청소 특장차량 1대를 도입해 운행한다고 밝혔다.
- 친환경 수소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주관하는 “대형 수소특장차 실증사업”에 지난해 12월 서울특별시가 참여기관으로 협약을 맺고 공단이 장비 운용실증 기관에 선정된 바 있다.
 - 실증사업이란 사업화 전 시제품 성능평가 취지로 실제 사용 환경에서 검증하는 사업을 의미한다.

- 이에 따라 공단은 수소 노면 청소차 1대를 인도받아 공단이 관리중인 서울시내 자동차전용도로 청소 노선에 투입하여 운행 과정에서 파악되는 각종 실증 데이터를 연구원 측에 제공하게 된다.
- 이번에 도입된 차량은 18톤급 현대자동차 수소트럭 엑시언트 차량을 기본으로 하여 적재함 용량 6t 및 물탱크 용량 2,100ℓ으로 특장 개조한 모델이다.
- 수소 노면 청소차는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에 효과적이다. 재비산먼지는 도로 위 침적된 먼지가 차량의 운행에 의해 다시 날리는 입자상 물질 중 지름이 10 μ m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. 이는 자동차 배기가스, 타이어 마모, 브레이크 패드 마모 등으로 발생된다.
- 또한 수소 노면 청소차는 일반적인 가스나 디젤 차량과 달리 온전히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와 유해물질 배출을 줄이고 미세 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- 서울시설공단 한국영 이사장은 “수소 청소차 도입으로 도로 환경정화 및 대기오염 저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” 며 “앞으로도 다양한 탄소중립 및 친환경 사업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조성에 적극 노력하겠다” 고 말했다.
- 한편, 공단은 자동차전용도로 일반 노면 청소차량을 총 11대 운영 중이며, 내구연한이 경과되는 경유 차량에 대해서는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해 나갈 예정이다.

첨 부 : 관련사진 1부.

〈관련사진〉

